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걸(왼쪽)씨와 함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운데)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에서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과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텃밭 민심 잡기
문재인-안철수 정면격돌



文 홀대론 해명하며 ‘반문 정서’ 깨기

“호남의 아픔 새기겠다”

정권교체 내세우며 지지 호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무등산 해맞이 이후 3주만인 22일 광주를 다시 찾았다. 지난 20일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 문 전 대표는 22~23일 1박2일 간의 광주와 전남지역 방문을 계기로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얻는 선두주자임을 부각해 ‘대세론’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 전락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22일 열린 지지모임 ‘포럼 광주’ 출범식을 계기로 그동안 반문(反文) 정서가 강했던 광주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뿌리깊은 ‘반문 정서’를 깨트리는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문 전 대표는 이날 열린 ‘포럼 광주’ 출범식에서 ‘호남 홀대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번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호남 홀대론이 가장 가슴 아픈 공격이다”며 “참여정부때 장관이나 대법관 등 정부 주요 요직의 호남인사 비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는데 의도적으로 호남인사를 홀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80년 5월 이후 광주에 대한 부채 의식과 함께 살아왔고 민주화 이후에도 부산에서 김대중 지지하면서 ‘빨갱이’다 전라도’다’ 편박받고 왕따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광주와 함께한다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같다”며 “이제는 광주, 호남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광주시민께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할 엄치가 없다”며 “지난 선거에서 호남이 가져 같은 지지를 저에게 물어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호남의 상실과 소외가 더 깊어졌다”며 “너무 면목없이 죄송스럽다는 인사도 당시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많이 부족한 문제인을 미워도 다시한번 손을 잡아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포럼 광주’ 출범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윤창현 광주시장, 민주당 소속 구청장, 지방의원 등 지지자 6000여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을 발발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날인 23일에는 ‘광주 전남언론인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히고 또 다시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할 계획이다. 이어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를 방문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한다. 문 전 대표의 ‘호남 공 들이기’는 설 연휴를 거치며 지역내 지지를 우위를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판단에서다. 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세를 다진 이후 설 연휴를 겨냥해 그간 준비해온 정책 구상을 밝히고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安 광주정신 꺼안으며 지지 회복 모색

5·18 헬기사격 현장

전일빌딩서 민생행보 시작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안 전 대표는 당의 최대 지역적 기반인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4·13 총선 이후 급락한 지지를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난 17일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현장을 찾은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았다. 이는 안 전 대표가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자신감을 회복한 것을 토대로 지난 4·13 총선 때 호남에서 불었던 ‘녹색돌풍’을 재연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이다. 안 전 대표는 광주 방문 첫날인 22일 최근 이슈가 된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소사 가능성이 밝혀진 전일빌딩을 찾았다. 전일빌딩은 최근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목이 쏠린 역사적 장소다. 안 전 대표가 첫 방문지로 전일빌딩을 택한 것은 5·18과 광주정신을 동시에 꺼안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5·18 당시 발표명령자를 찾은 것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강철수라는 별명은 광주에서 붙여준 별명”이라며 “총선회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면서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재벌·공정위·검찰 개혁 등을 강조하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정거래위의 준사법기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돌파하겠다”면서 “제 돌파력은 작년 총선 때 이미 증명했다. 지금 현역의원 중에 저만큼 돌파력을 보여주고 그 성과를 증명한 사람이 있느냐”고 자신감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23일엔 전남에서 기자회견,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박지원 대표의 지역구인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 설 인사를 한다. 이튿날에는 광주로 돌아와 한국광기술원 산하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과 만난다. 안 전 대표가 이처럼 촘촘하게 호남을 훑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문 전 대표에게 빼앗긴 호남의 지지를 되돌려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 영역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반전 총창이 주춤하자 자신감이 회복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안 전 대표는 2박3일간 광주·전남지역 민생행보를 통해 친노 패권주의에 맞서고 지각론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카드를 내세우며 ‘녹색돌풍’의 진원지인 호남에서 다시 ‘안풍’(安風, 안철수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으로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완전국민경선’ 형태로 치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완전국민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경선’과 구별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이 주장해 온 결선투표제 역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룰을 조율

중인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오전 11시 연석회의를 갖고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완전국민경선에 대해서 당헌당규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으로 일단 의견이 모였다”며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지도부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완전국민경선제 방향으로 간다”며 “대신 권리당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의는 좀 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2등 이하의 후보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당내 유력자인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주자들이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을 고려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 전 대표 역시 경선 룰에 대해서는 ‘백지위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결선투표제·선거연령 18세 당론 채택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국회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왔고 원내 지도부는 위원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고 입장이었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서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

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당원권 복권에 대해서는 조판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창당준비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

었는데 긍정적이라는 점은 확인했다”면서 “4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개정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모든 안전에 대해서 소속 의원 찬성이 3분의 2를 넘겨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선거 연령 안전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뜸, 서암온열뜸기, 아큐뮬,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정통 개정판
고려수지침강좌
(高麗手針鍼法講座 第13版)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정통 개정판
고려수지침·서금요법
14기맥학(十四氣脈學)
(제3개정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